

2023

가정 추도 예배



인도자: 각 가정의 대표

예식사 인도자

다같이 묵도하심으로 000 님의 ()주기 추모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묵도 인도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단7:18)



기도 인도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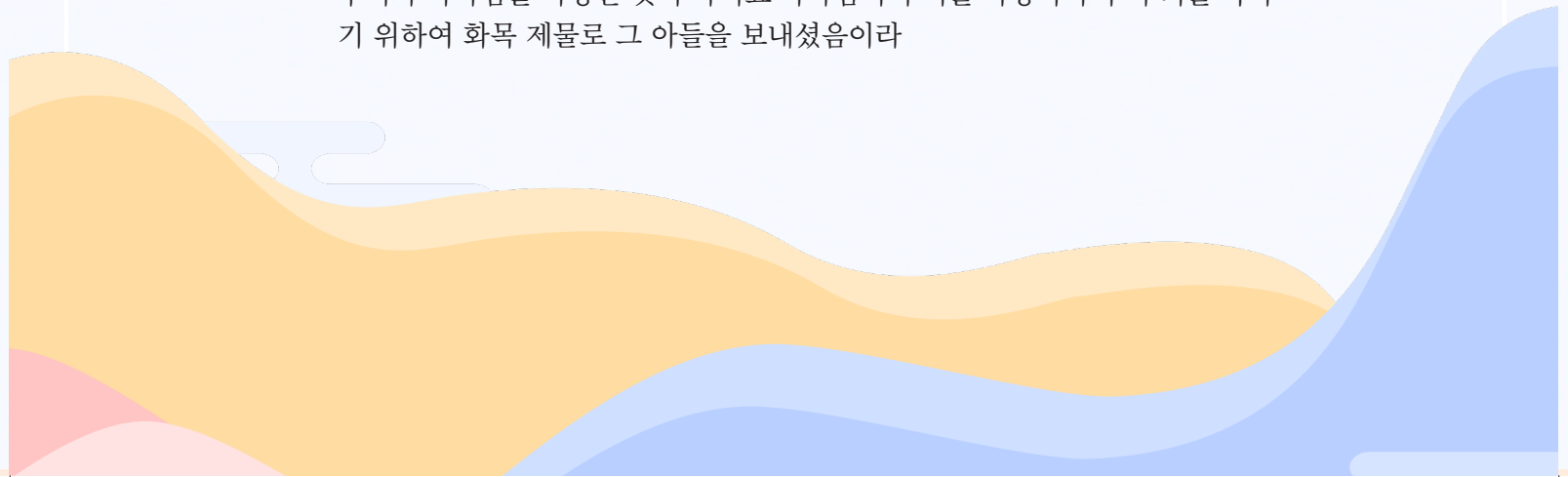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000 님을 추모하며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찾아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하는 고인이 하늘 나라에서 기쁨과 평안 가운데 잘 지내고 계심을 저희
가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충만하게 누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이 사실로
인해 우리 안에 하늘의 위로가 가득하게 하시고, 우리도 고인과 같이 오직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축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그리스도만을 신
뢰하는 믿음의 가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493장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다함께

1.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둔 그늘 헤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2.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도다
3.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말씀봉독 요한일서 4장 9-10절 다함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
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
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선물을 받아보신 적 있으십니까? 선물을 받으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상대방의 정성이 고맙기도 하고 내 자신도 대접을 받는 것 같아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크든지 작든지 선물에는 소중한 의미가 들어 있기에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냥 평범한 선물이 아닙니다. 이 선물의 가치는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온 우주를 팔아도 살 수 없는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 사함이 있고 영생이 있고 마귀와 죽음을 물리치는 힘이 있습니다. 이러한 능력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통해 이 은혜를 받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없는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는 죄 사함과 함께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됩니다. 마귀의 저주에서도 해방되고 사망 권세에서도 해방되는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000 님은 하나님의 선물을 받으신 분이십니다. 살아생전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셨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그 축복 속에서 천국에 계신 것입니다. 평안과 안식이 넘치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신 것입니다. 이로 인해 우리는 고인의 기일을 소망 가운데 보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000 님께서 이 땅에 있는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늘 예수님으로 찬탄하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000 님의 추모예배를 드리는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새롭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로 살고 예수로 죽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 선물인지를 늘 경험하며 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1.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2.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 3.너 쓸 것 미리 아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 4.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후렴)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 주시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